경계 넘어 창조적 활동 펼쳤던 '시대의 크리에이터'

문학평론가·언론인·작가·교수
'한국인'·'디지로그' 등 키워드
암 투병 중에도 말년까지 집필
'흙속에 저 바람속에' 등 펴내
88올림픽 '굴렁쇠 소년' 기획
문화도시 '광주만의 톤' 강조도

지난 2021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영인문학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7일 별세한 '시대의 지성'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문학, 언론, 학문, 출판, 문화 기획, 행정 등 다양한 방면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인은 변화의 시기마다 특유의 혜안과 통찰로 시대정신과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대 초반 문학 평론으로 문단에 등단한 고인은 평론가 외에도 소설가, 시인 등 문인으로 활동했으며 대학 교수로, 문학 이론가로도 탁월한 자취를 남겼다.

그의 활동은 문학의 경계를 넘어 언론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 고인은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비롯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며 당대 최고 논객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1958년 서울대 국문과 동기였던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와 결혼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영인문학관은 고인과 부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고인은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시대의 지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고인의 사유와 저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우상 파괴', '한국인', '문화', '디지로그', '창조' 등으로 집약된다.

그를 문단과 지성사에 명확하게 각인시킨 것은 데뷔작 '우상의 파괴'였다. 고인은 이 평문에서 당시 문단의 거두였던 김동리를 비롯한 문단 선배들의 가식적 행태를 '우상'이라고 비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1968년 시인 김수영과 문학의 현실참여 문제를 두고 '불온시' 논쟁을 벌였다. 당시 고인은 문학이 사회 비판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했다.

이어령 교수가 천착했던 부분은 한국의 문화였다. 초기 대표작이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한국 문화론'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풍토에 관한 글을 제의받은 그는 풍토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고 순서 또한 바람과 흙으로 뒤집는 기발한 발상을 이끌어냈다. 책은 당시 국내에서만 1년간 10만 부가 팔렸다.

고인의 또 다른 대표작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한국인이 쓴 책으로 일본에서 처음 베스트셀러가 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 교수는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동경대 비교문학과 교수를 역임 중이었다. 일본 문화의 특징을 '축소지향'으로 본 고인의 통찰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의 발전은 축소지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반면 침략과 관련된 확대지향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인은 생전에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예향 광주에 대한 그의 애정과 기대는 오늘의 관점에서 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지난 2006년 4월 20일 광주일보 창사 54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도시의 건축물, 환경, 거리 등도 문화적이어야 하지만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주만의 톤'이 있어야 한다"며 "문화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니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미의식과 과련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광주시민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계산적이고 각박한 서울사람들이 디지털형 인간, 다소 느리고 여유가 있는 충청도 사람들이 아날로그형이라고 한다면 광주는 이 두 가지를 갖춘 '디지로그 형 인간'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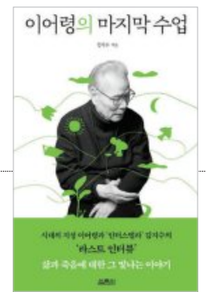
고인은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내는 등 문화 기획자로서도 남다른 업적을 거뒀다. 고인이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연출한 '굴렁쇠 소년'은 세계인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990년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면서 고인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맡아 문화정책의 틀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장관 재임 시 국립국어원을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도서관 업무 이관, 전통공방촌 건립 등을 마무리 지었다.

고인은 한국이 산업사회에서는 늦었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 앞설 수 있다고 설파했다. 스스로를 '크리에이터'라 불렀던 그는 '창조'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2009년에는 창조학교를 건립해 명예 교장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랜 세월 무신론자였던 고인은 말년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장녀 이민아 목사의 암 투병과 실명 위기 등이 고인으로 하여금 개신교 신앙을 갖게 한 요인으로 전해진다. 이어령 교수는 신앙을 고백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펴내며 "제가 처음 쓴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약점, 슬픔을 고백한 일종의 일기장이라고 할까요"라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은 지난달 '이어령 대화록' 시리즈 1권 '메멘토 모리'(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를 펴내는 등 마지막까지 생의 본질을 추구했다. 그가 펴냈던 다양한 지성의 저작은 이제 독자들 곁에 남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지난 2006년 광주일보 창사 54주년을 맞아 본사 박진현 문화생활부장(현 제작국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메멘토 모리' 인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별세 소식과 맞물리면서 그가 펴낸 책을 찾는 독자가 늘고 있다. 27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열림원)이 전날 인터넷 판매량을 집계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이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죽음과 삶, 예술 등의 이야기가 정리된 책이다. 문화전문기자 김지수가 인터뷰를 했다.

이 전 장관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책인 '메멘토 모리'(열림원)는 교보문고 전날 베스트셀러 24위를 기록했다. '이어령 대화록'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별세 한 달여 전 가톨릭 신부에게 물은 24가지 질문을 자신의 관점으로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별세 전 스무 권 분량으로 계획한 대화록 두 번째 책의 제목과 내용 정리를 마쳤다고 열림원 측은 전했다. 종교에 관한 대화를 기록한 두 번째 책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는 오는 4월 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부조니 우승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3월 25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지난해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사진〉이 광주에 온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시즌 2022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 인 코리아- Ⅰ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이 오는 3월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2007년 시작한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는 세계적인 명품 피아노 회사인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가 매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 가운데 뛰어난 수상자들을 선발해 세계 곳곳에서 선보이는 공연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제1회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토니윤, 제19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우승자 김수연 등이 공연을 가졌다.

이번에 무대에 서는 박재홍은 '언젠가는 꼭 연주하고 싶다'고 소망하던 슈만의 '아라베스크'와 '피아노 소나타 1번'을 들려준다. 이어 부조니 콩쿠르 참가곡인 베토벤의 '함머클라비어'을 연주해 이탈리아 페루초 콩쿠르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재홍은 지난해 열린 제63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당시 결승 무대에서 그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 뛰어난 테크닉과 번뜩이는 음악성을 선보여 우승을 차지했다. 부조니 작품 최고 해석상과 실내악 최고 연주상 등 4개 특별상도 함께 받았다. 그는 지난 23일 부조니 콩쿠르에서 연주한 3곡이 담긴 앨범도 발표했다.

한편 기획공연 포시즌 다음 공연은 2년만에 한국을 찾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의 리사이틀로 5월3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전석 3만원이며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 할 수 있다.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각보, 색을 입다

이남희 개인전, 3월2일~15일 LH휴랑갤러리

'한 땀 한 땀 정성 담긴 바느질.'

옷이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일일이 바느질 해 만든 조각보는 다채로운 색상과 면구성이 눈길을 끈다. 또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알뜰함과 생활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조각보 작업을 꾸준히 해온 이남희 작가 8번째 개인전이 오는 3월2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주택공사 휴랑갤러리(광주시 서구 시청로 91)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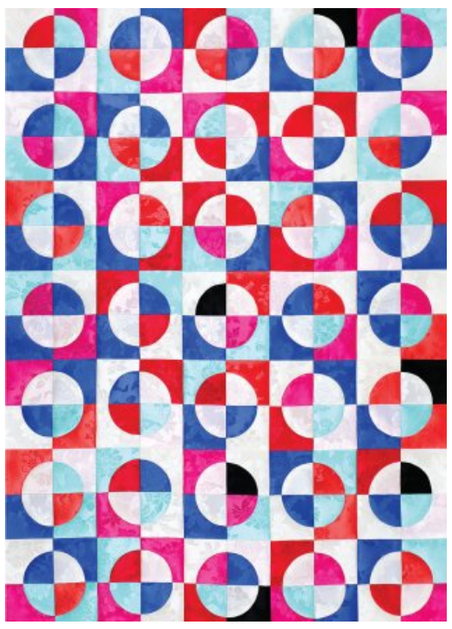
'색(色)을 입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독특한 바느질 기법과 다양한 색상의 천이 어우러진 조각보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묘한 색의 조합이다. 검정, 하양, 빨강, 파랑 등 각각의 색깔은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화사한 분위기와 함께 독특한 조형미를 만들어낸다.

예로부터 조각보는 우리 삶과 함께였다. 크게 만들어 이불보로 이용하기도 하고, 문에 치는 발로도 사용했다. 또 멋을 내 예단이나 혼수품을 싸는 데 쓰였고 일반 가정에서는 물건을 싸거나 밥상을 덮는 데 사용했다.

비단이나 모시 등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조각보는 최근 독창적이고 고유한 한국적 디자인 소재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색상과 면구성 형태가 현대 복식이나 가구, 공예, 건축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 작가는 "조각보는 자투리 천을 이어붙여 새롭고 실용적인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한땀 한땀 정성 가득한 조각보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준다"며 "천 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는 과정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다양한 감성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천연염색과 2년 과정과 조선대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통을 잇다', '실과 바늘 이야기' 등을 주제로 8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상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시 산수동에서 손길갤러리와 손길공방을 운영중이다. 토·일·공휴일 휴관.



'색(色)을 입다 Ⅰ'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윤범모 관장 재임명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MMCA) 수장 자리를 윤범모(71·사진) 관장이 3년 더 맡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윤범모 관장을 재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3년이다.

윤 관장은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미술평단에 등단한 후 30여 년간 미술비평가로 활동했으며 기자, 전시기획자, 교수, 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돼 지난달 말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지난 임기 중에는 미술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 전시 기획, 협업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받는 행운도 누렸다.

이번 공모에서 윤 관장은 이영철(65) 계원예대 교수, 이영욱(65) 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국립현대미술관장 연임은 김윤수 전 관장(2003~2008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